

포항시장 종교편향 규탄 집회 열기로

불교계, 면담 자리서 홀리클럽 탈퇴 요구...정 시장 거부

종교편향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는 정장식 시장이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을 탈퇴하라는 불교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 불교계가 대규모 규탄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종교간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1월 16일 포항시암연 종교편향대책위 관계자들이 정장식 시장에게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종교편향대책위(이하 종교편향대책위)는 11월 16일 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하기 위해 정 포항시장과의 면담이 나섰으나 정 시장은 개인적 종교활동이라며 거부사를 밝혔다. 이에 포항불교계는 18일 정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기로 결정했다.

포항불교계는 먼저 11월 30일 시청 앞에서 불자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어 12월말

에는 대구 경북 지역 불자 3천여 명이 동참하는 불교대회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11월 17일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을 만나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중앙신도회 등 9개 단체도 11월 15일 정 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활동에 나서고 있다.

포항 불교계가 이처럼 발끈하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준비과정에서 홀리클럽 발족을 준비하던 정 시장과 마찰을 빚으면서부터다. 개신교측에서는 기존 홀리클럽을 기관장 모인 성격의 홀리클럽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전국적인 기관장 선교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고, 포항 홀리클럽이 그 첫 번째 모임이라는 사실이 포항 홀리클럽 홈페이지 창립 관련 글에 나와 있다고 포항 불교계는 말하고 있다.

포항사암연합회 총무 임대 스님은 "포항 홀리클럽은 정 시장의 정치적 야망과 기관장 홀리클럽을 결성해 공직사회를 이용한 선교활동을 해 보겠다는 개신교측의 계산이 만나 빚어진 사건"이라며 "성서화 운동 세계대회 준비안에 시 재정 1%를 선교자금으로 쓰겠다고 명시한 것은 위법이며, 정 시장이 명예대회장으로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포항 일부 개신교계는 불교계의 움직임에 대해 종교와 정치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포항 기독교 교회연합회와 포항 성서화운동본부는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일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유신 · 배지선 기자

천성산 문제 파국으로 가나

도룡농의 친구들, 법원 조정권고안 거부 "공사와 법원감정 동시 실시 말도 안돼"

지을 스님과 '도룡농의 친구들'은 부산고법 민사1부(담당 김종대 판사)가 '도룡농소송'과 관련해 11월 15일 제안한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수철 관동 타일공사 때문에 빚어진 '천성산 문제'는 더 이상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 이야기했던 고수철도 공단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법원의 조정안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적법한 절차의 수순을 저버린 법정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산고법이 제안한 '고수철 공사와 6개월간 법원감정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조정안을 지을 스님 측에서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도룡농의 친구들'은 11월 16일 성명서에서 '사후 영향평가로 보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겠다

'도룡농의 친구들'은 이어 '이 재판(도룡농소송)은 '공사착공금지 가

처분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기 전 법원의 권위로 공사를 하라 하고 있으며, 6개월간의 공사피해가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을 때 이것(법원 감정)은 사후 약방문처럼 무의미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도룡농의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불안한 미래에 우리는 조금씩 눈 뜨고 있으며, 30만 도룡농의 친구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을 스님은 10월 27일 시작된 단식농성의 장소를 부산법원으로 옮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법원은 29일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문경에 명상웰빙타운 조성

5만1천여평에 529억원 투입 2008년 완공

경북 문경시 문경을 고요리 일원에 조성되는 '문경 명상웰빙타운'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상북도는 11월 16일 문경시청에서 사업구상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5만 1000평 부지에 약 5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명상웰빙타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 여가문화에 걸맞은 체험형 문화관광 시설도 들어선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사유지매입과 용도지역 변경·기본 시설설계 완료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08년까지 기반시설 정비와 민자유치를 통한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는 명상웰빙타운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요가와 명상 음악, 참선, 선무도, 태극권 등을 수련할 수 있는 명상체험센터와 △기공과 물리치료, 향기요법, 경락, 약물방, 음악요법, 한방치료, 수지집, 발마사지 등 웰빙클러닉 시설이 건립된다. 또 △건강차와 선식, 건강식, 건강음료, 지역특산물 등 웰빙푸드 시설과 △숲길, 황토산책로, 인공운천호수 반신욕, 삼림욕 등 주위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웰빙파크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자기 체험과 민속공예품 제작 △국악 교실 △다도 · 서예 △농장체험(팜스테이) △웰빙전시관 등 주5일 시

대 여가문화에 걸맞은 체험형 문화관광 시설도 들어선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사유지매입과 용도지역 변경·기본 시설설계 완료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08년까지 기반시설 정비와 민자유치를 통한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는 명상웰빙타운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천불교전승가회 사단법인 '실천불교'로

1992년 창립대 교단 개혁과 사회 민주화에 기여해온 실천불교전승가회(공동의장 효림·성관, 이하 실천승가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실천불교'로 이름을 바꿨다. 실천승가회는 11월 22일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사단법인 '실천불교' 창립법회를 거행한다.

사단법인화는 2005년 초부터 본격화될 캄보디아 지원사업(BWC: Beautiful World of Cambodia)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 초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사단법인화를 통해 실천승가회는 지난 10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약서 교환 같은 공식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게 됐다. 또한 이번 일은 창립 12년 만에 공식적인 단체로 조직을 재 정비했다는 의미도 띤다.

이시장은 지선 스님, 이사는 청화, 효림·성관·법안·장적·일문 스님·감사는 퇴후·토진 스님 등이 맡는다. 실천승가회는 17일 홈페이지(www.silchun.org)를 재개통했다.

군승의 날 기념법회 연다 30일 서울 하림각서

서른 여섯 번째 군승의 날을 기념하는 법회가 11월 30일 오후 6시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열린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법회는 군포교황동 보고, 군포교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표창 수여, 군법당 도서 증정식 등으로 진행된다. 표창은 김갑영 법사와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변상수 연천군청 주사, 이시진 대전군불교진흥회장이 총무원장상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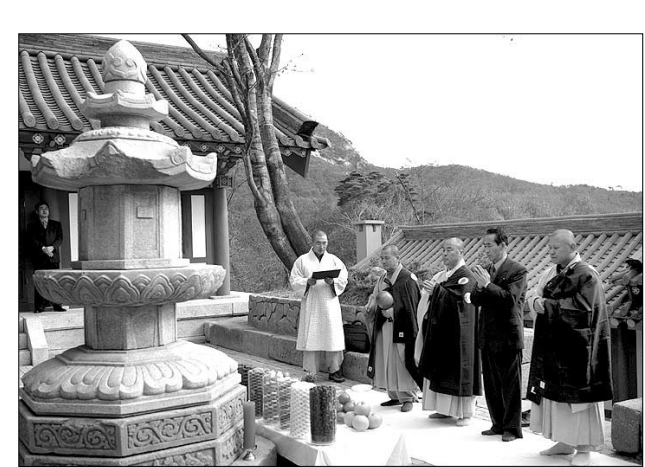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무원 장법장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 등을 비롯한 관계자 등 6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불교위원회는 앞서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현역 군승들의 총회적인 군승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4일 재소자 독경대회 선각종 주최 광주교도소서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1월 24일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독경대회를 개최한다. 2000년부터 재소자 교화를 위해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로 5회째. 이번 독경대회는 총 30여명의 재소자 불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선각종은 이번 대회를 위해 11월 초 광주 두암동 소재의 한 찻집에서 후원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어 3백여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마련했다.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한 사람이라도 교화할 수 있다면 모든 재소자의 마음 속에 불교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독경대회를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재소자 불자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사찰로 알려진 개성 영통사에서 11월 16일 남북 불자들이 의천 스님 903주기 열반재를 봉행하고 있다.

남북공동 의천 스님 열반재 봉행

16일 개성 영통사서

"남북 불자들의 가슴에 통일 의 희망을 심는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903주기 열반제가 남북 불교계 공동으로 북측 사찰에서 열렸다.

남측 천태종 대표단(단장 무원)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영통사북원위원회는 11월 16일 대각국사의 출가사찰로 알려진 개성 영통사에서 열반제를 봉행했다.

이는 남북불교계의 교류영역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대북교류에 천태종의 위상을 확인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천태종 스님의 집전으로 전통

의식으로 열린 이날 열반제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 조사 법어 봉독 △분향(남·북 대표) △추모사 △편음장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은 사회부장 무원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북녘의 사찰에서 남북 공동으로 대각국사의 열반제를 개최한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불교계가 보다 활발한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남북통일을 앞당겨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천태종은 이와 별도로 11월 16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대각국사를 기리는 열반재를 봉행했다.

박봉영 기자

황룡사·감은사 복원 청와대에 공식 건의

경주 불국사주지 종사가 황룡사와 감은사 복원공사의 빠른 이행과 태권도공원 경우 유치를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

불국사는 11월 15일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천만 불교도의 열렬인 황룡사와 감은사 복원을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불교계의 의견을 모아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주의 역사성과 4개 공방 및 고수철도 등의 다양한 교통망,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할 때 경주가 태권도공원 입지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동국학원 학생 1천명 24일 합동수계식

동국학원 소속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11월 24일 동국대학교 교강당에서 합동수계식을 한다.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을 계사로 개최되는 이날 수계식은 은석초등학교를 비롯해 동국학원 소속 8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10시부터 열리는 1부 수계식에는 동대부고, 명성여고 학생 500여명이, 2시부터 열리는 2부 수계식에는 은석초등학교, 동대부중, 명성여중, 흥재중, 금산중·고 학생 500여명이 수계한다.

강지연 기자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일러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선의 본질과 의미 ■ 무어 스님(봉화 죽서사 주지)-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보은 법주사 총지선원장)-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동선원장)-비우고 위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전 조계종 기초선원장)-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웅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경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경허·만공 선사 가르침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www.yosiamun.com 총무국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어서아문

